금호석유화학, 신용등급 BBB+ 상승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신용등급이 BBB+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는 금호석유화학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올린다고 4월6일 발표했다.

주력사업인 합성고무 부문의 사업기반이 튼튼하고 수익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신용등급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의 현금 창출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계열사와 관련한 부담이 줄면서 차입금 축소 기조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학저널 2011/04/06>